

프랑스 꼬뮌의 기원과 지역 정체성

Origin and territoriality of the French commune

정옥주 (국토연구원, OKJeong@krihs.re.kr)

우리나라나 프랑스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의 행정구역은 이미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단위를 기초로 구획 되었거나, 일단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후 점차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. 또한 오늘날 행정구역,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공간 규모와 성격은 참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 분권의 실시,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.

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인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기초 생활단위이자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꼬뮌(commune)의 기원, 지리적 사회적 특성,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토대로 형성되어 온 지역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. 평균 면적 15km², 평균 인구 1600명에 불과한 꼬뮌이 산업화, 도시화, 생활권의 확대, 정부의 통합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 문화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는 이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, 꼬뮌의 강한 지역 정체성 때문이 아닌가?

꼬뮌은 중세의 교구(paroisse)가 대혁명기에 그대로 제도화한 것으로, 따라서 그 기원은 프랑스 농촌의 인간 정주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. 즉 프랑스 농촌의 정주체계는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한 취락이 교구라는 성당의 구획 단위와 접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. 브르타뉴(Bretagne)지방을 제외한 갈로(gallo) 프랑스의 농촌 성당은 도시 성당의 지성당(支聖堂)으로서, 이 지성당은 자신의 주변에 마을(village)을 구축하고 성당을 중심의 취락 구조를 형성하였다. 주민들은 교구의 신도이자 주민공동체(communauté d'habitants)의 일원이었으며 주민대표자들은 성당과 관련된 종교적인 일 외에도 윤작, 공동재산 관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였다. 교구의 지리적 경계는 카롤링 왕조가 이를 십일조(dîme) 징수 단위로 삼던 9세기경 확정이 된다.

역사지리학자 Jean-René Trochet는 프랑스, 더 나아가 서부 유럽 전통사회 꼬뮌의 기원과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접합, 그리고 이 지방권력의 성격에 큰 비중을 두었다. 중앙권력(카톨릭, 왕정)과 지방권력(주민공동체)이 불가분하게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면서 꼬뮌 형성에 참여 하였으며, 이 지방권력은 혈연에 바탕을 둔 가족공동체가 아닌 근린에 토대를 둔 지역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곳에 민주주의 전통이 일찍부터 꽃필 수 있었다는 것이다. 우리나라 17, 18세기 농촌마을의 보급과 면리제 구획을 이 틀에 맞춘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